

또 다른 시작을 위하여



엄연숙

『학력사항』

-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 영국 워릭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現) 서울물연구원 원장
- 구로구청 부구청장
-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장
-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
- 서울시청 홍보담당관
- 1993년도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I. 합격을 기쁨을 어머니께

2차시험을 치르고 참으로 긴 기다림 끝에 합격발표가 있었다. 오랫동안 막연한 기대와 불안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시험을 치르기 전에는 모든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시험을 치른 후이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11월 4일, 합격을 확인한 순간, 나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소리쳤다. 드디어 합격했다고. 우리 가족 모두는 지난 3년간의 수험생활을 마치 아름다운 추억인 양 얘기했다. 최종 발표가 난 지금, 나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는 생각이 든다.

II. 행정고시를 시작하기 전

나는 1962년 3월,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河東面) 대야리(大野里)에서 우리 부모의 맏딸로 태어났다. 그곳은 교육의 기회란 국민학교가 고작인 산골이다. 중학교의 진학조차도 꿈꾸지 못하였다. 나는 다행히 아버지의 직장이 서울로 옮겨지면서 가족이 서울로 이사하게 되고 중학교 이후의 학업을 계속할수 있었다. 국민학교 6학년부턴 서울에서 다니게 되었다.

나는 강남여자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의 성적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경쟁하듯 공부하는 학업에 취미를 잃어버려 그림을 그리거나 독서를 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 탓에 당연히 학교성적이 나빴고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데도 어려울 지경이었다. 다행히 담임선생님의 도움으로 (주)한국비료에 취직하였다. 그때는 어려운 집안 살림을 돕는다는 데 만족했고 별다른 꿈을 키우지는 않았다. 시간이 나는 대로 독서를 하면서 보냈다.

직상생활이 3년 정도 되자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이리다가 너무 늦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허겁지겁 학력고사를 보았다. 수험시간이 너무나 짧았고 공부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좋은 성적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서울여자대학교 사학파에 합격하여 대학생활의 기회가 주어졌다.

사학이라는 과목은 나에게 많은 공부를 하게 하는 매력적인 학문이었으나 학과가 요구하는 만큼의 공부도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크다. 별달리 취미라는 것이 없었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지도 않아 공부할 시간이 많아 독서에 많은 시간을 들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계속 공부하기 위하여 대학원 진학을 생각했으나 처음의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다시 공부하는 와중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

집안 경제의 전부를 관장하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학업을 포기하고 취업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리하여 증권회사에서 마련한 투자상담실에서 일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어서 2년 남짓한 생활을 큰 무리없이 보냈

다. 가족 모두의, 특히 남동생의 고생으로 집안이 어느 정도 여유를 갖게 되면서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 재차 대학원 시험 준비를 하였다.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인지 또 실패를 하였다. 학업의 계속도 나의 수입이 없이는 어려운 일이었고 보다 안정된 직업을 갖는 것이 필요해서 공무원이 되기로 했다.

III. 행정고시를 시작한 후

공무원이 되겠다는 생각을 굳히자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의지가 굳어졌다. 처음에는 7급 공무원 시험을 목표로 공부했고 시험도 보았다. 역시 준비한 기간이 짧았고 철저히 공부하지 않아서인지 실패했다. 그러던 중 행정고시를 공부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기왕 하는김에 행정고시를 목표로 준비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을 들었다. 그분은 각종의 수험안내서와 자료를 주면서 읽어보라고 했다.

내가 행정고시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회의도 있었지만 7급시험과 병행하기로 하고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교정직을 목표로 3년의 시한을 두고 2차시험 과목부터 공부를 시작하였다. 교정직을 선택한 것은 1차시험과목에서 다른 직렬보다 익숙한 과목이 하나 더 있고 격년으로 시험이 있어서 2차시험을 준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계산이 있었다. 1991년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시험준비를 했고 그때는 1차시험에 주력하였다. 5월 1차시험을 치렀으나 도무지 불안하였다. 그래서 2개월 정도 여유있는 7급시험에 주력하였다. 합격발표가 있고 1차시험에 떨어지자 7월 말에 있는 총무처 7급 외무행정직에 시험을 치렀으

나 또 떨어졌다.

7급 시험의 합격발표가 나고 불합격을 확인한 후 각오를 새로하여 직렬을 일반행정직으로 바꾸어 행정고시에 주력하기로 했다. 어차피 시험은 1993년으로 잡았으나 계획한 대로 1993년까지만 공부하자라는 생각에서 철저한 시간계획을 하고 필요한 책을 구입하고 1차시험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결국 1992년에 1차시험을 상당히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였고 1993년 2차시험과 3차시험에 합격하였다. 1차시험 2회와 2차시험 2회를 치른 것이다.

IV. 제1차시험의 준비

1차시험은 보라매 공원안에 있는 보람독서실에서 주로 혼자서 공부했다. 하루 8시간은 반드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시간계획을 하였으나 실제로 도서관에 있는 시간은 약 15시간 정도가 되었다. 나머지 시간은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산책을 하기도 하고 가끔씩 탁구를 치기도 하였다.

5과목 모두에 골고루 시간을 안배하여 영어와 국사는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틈틈히 하되 영어에 많은 시간을 투입했다. 하루 중 공부가가장 잘 되는 시간 2시간과 가장 안되는 시간 1시간을 영어에 투입하고 나머지 과목을 거기에 맞추어 시간을 안배하였다.

1992년 1월부터 내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바에 의하면 시가니 지나면서 80점 이상에서 점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였다. 3월에 있는 입법고등고시에서 아깝게 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당시 내가 낼 수 있는 최고점수였던 것 같다. 84점이었다. 이후로도 계속

점수가 올라갔고 행정고시 1차시험의 성적은 그때까지의 내 성적의 최고 점수였다.

V. 제2차시험의 준비

1차시험을 치르고 자신 반 불안 반으로 마음이 통 잡히지 않아 어영부영 시간을 보낸것 같다. 1차시험의 합격발표가 나자 갑자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였고 그때서야 부랴부랴 책을 구입하여 한번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갔다. 시험삼아 본 시험이었으나 아는 만큼의 지식을 총 동원하여 시험을 끝까지 치렀다. 막연히 합격하였으면 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떨어지는 것을 당연히 여겼다. 2차시험 발표가 나기까지는 공부를 하기보다는 시험공부에 필요한 책을 사거나 나보다 많은 공부를 한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썼다. 또한 극도로 약화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서 한약을 먹고 침을 맞고 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기도 했다. 11월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학원을 다니고, 시간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시작했다. 공부하는데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입하려고 1주 최소 60시간은 순전히 공부하는데만 쓰기로 하고 나머지를 건강을 관리하는데 쓰기로 하였다.

1993년 2월까지의 보라매 도서관에서 공부했고 3월부터는 집이 봉천동에서 미아동으로 이사하는 바람에 공부장소를 신림동의 고시원 독서실로 옮겼다. 아침 5시 50분경에 집에서 나와 7시에 독서실에 도착하였고 10시 30분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집에 도착하면 12시가 넘었다. 다행히 그 시간은 전철이 비

교적 한가하여 잠을 잘 수도 있었고 책을 보는 데도 무리가 없었다.

특히 3월부터 시작한 태학관의 모의고사를 치느라고 독서실에 충실히 다녔고 사람들과 틈틈이 진도를 비교할 수 있어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컸다.

1. 건강관리와 휴식

나는 특별히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서 건강을 위하여 별달리 운동을 한 것은 없지만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가끔 관악산을 오른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운동이라 할 것이 못되었다. 결국 시험을 치는 순간까지 건강이 안 좋았고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여 두통이 심했고 너무 고칼로리 식사를 하여 몸이 비대해졌다. 다만 성격이 비교적 낙천적이라 조금해 하지 않았고 자신감이 있었던 탓에 견뎌낸 것 같다. 나로서는 건강관리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건강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2. 2차과목 시험공부

전체적으로 2차과목은, 1차시험과 같이 충분한 이해와 단순한 암기로서는 부족하다. 각 과목의 기본서를 충분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반드시 암기하여 언제라도 재구성할 만큼의 준비는 필요하다고 본다. 나는 단권화나 서브노우트를 작성하는 식의 짝 짜여진 방식으로 공부하지는 않았으나 기본서로 택한 과목은 거의 암기가 될 정도로 충분히 읽

어 두었고 그 다음에는 다양한 견해를 알아보기 위하여 많은 책을 읽어 두었다. 전철에서나 또는 잠자리에 누워서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시험문제를 만들어 머릿속으로 정리해 두고, 사람들을 만나서 나름대로 아는 만큼을 얘기하여 그들의 의견을 듣기도 하였다.

3. 그룹 스터디 등

그룹 스터디는 2차시험준비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룹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관리와 동료들에 대한 이해심이 없이는 힘들며 함께 호흡을 맞추지 않으면 안하니만 못한 결과를 낳는다. 나의 경우는 스터디를 같이 할 동료를 찾기가 어려웠고 그룹을 유지하는데 드는 정신적 비용과 시간적 비용이 크다는 생각에 그룹 스터디는 하지 않았다. 다만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과 가끔씩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고 학원에서 운영하는 모의고사 시험을 충실히 따라감으로써 그 부족을 메꾸었다.

주변에서 그룹 스터디를 통해서 훌륭한 성과를 거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그러나 자기 관리에 충실하고 계획한 대로 수행할 능력이 있다면 혼자서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다만 항상 타인의 견해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자세는 필요하며 개방적인 사고를 가질 것이 요구되고 자신이 아는 것을 남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표현기술을 익히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리고 考試雜誌나 여타의 자료집에서 구한 정보나 새로운 이론, 참고자료는 구하는 즉시 읽으라고 권하고 싶다. 그것은 쌓아두면 부

답스러운 제가 될 뿐이며 종내는 못 읽어보고 말게 된다. 자료는 즉시 읽고 머릿속에 저장하라 권하고 싶다.

나는 수험가에 나도는 단권화의 신화나 그룹 스터디의 신화는 다르지 않았으나 공부에서 오는 긴장감과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경쟁하는 시험공부가 아닌 하나의 학문의 장으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기회가 닿는 대로 관련된 많은 책을 보았다. 가까운 서점에 서서 책을 보기도 하였고 국립도서관에서 새로이 나오는 책에도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 독서실 공부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는 방편이 되기도 했고 새로운 이론을 접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VI. 마치면서

나는 3년간의 시한을 잡아서 공부했고 계획한 대로 되었다. 한 번의 실패가 있었으나 그 실패가 지금의 성공에 거름이 되었다. 매달, 매주, 매일 충실한 계획하에 공부하였던 것 같다.

고통도 있었고 좌절감도 있었으나 하루하루를 잘 견뎠다는 생각이다. 행정고시의 합격은 나의 하나의 목표의 성취이지만 이것은 나

의 다른 새로운 시작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시험공부하던 기간의 열성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리라 다짐한다.

내가 계획한 한도에서 아무런 걱정없이 공부하게 해 준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무한히 감사한다.

특히 끝이 분명하지 않은 공부를 하는 나를 아무런 불평없이 도와준 선숙, 명호에게 한없는 고마움을 느낀다.

공부하는 동안의 괴로움을 모두 토로하게 해 준 친구 박정화에게 감사하고, 행정고시 준비에 시행착오를 적게 해 준 주정호씨에게 감사하고, 시험기간 내내 도와주고 격려해 준 이재진씨에게 감사하며 그의 준비하는 시험이 빠른 시간에 성공 있기를 기원한다. 2차시험을 공부할 때 좋은 안내자가 되어주고 많은 것을 알려준 강민규씨에게 감사하며 앞날의 발전을 기대한다. 끝으로 자신감을 갖게 해 준 태학관의 모의고사 담당교수님들께도 큰 감사를 드리고 싶다.

지금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 모두 열심히 노력하여 뜻을 이루기를 기원한다.